

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내 딸이 그 빚 물려받는다

기사입력 2019-12-01 11:03 최종수정 2019-12-01 14:12

[금융SOS 5회] 상속포기가 답일까
빚도 재산처럼 4순위까지 상속돼
상속인 한 명이 한정승인하면 종료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으로 구분돼
각서 써도 법원에 접수해야 효력



[사진제공=pixabay]

Q : 주부 이모(42)씨는 보름 전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로 밤잠을 설친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자 각종 채무가 쏟아져 나왔다. 경기가 나빠지며 사업이 어려운 줄만 알았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동생과 상의해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신의 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에 겁이 덜컥 났다. 이 씨는 “빚까지 자녀에게 대물림될지는 몰랐다”면서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A : 이씨처럼 부모의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씨의 사례처럼 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이씨 자녀에게 수억 원의 빚이 상속된다. 빚도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직계존속·조부모),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친족)에 차례대로 넘어간다.

A : 광종규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변호사는 “상담을 해보면 자녀가 부모의 상속만 포기하면 끝난 줄 알았다가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얘기에 놀라곤 한다”면서 “가족이 상의를 한 뒤 피상속인 자녀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은 뒤 나머지 형제가 상속포기를 하는 게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A :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부모의 빚을 청산하겠다는 의미다. 상속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다. 곽 변호사는 “상속 1순위에서도 선순위인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면 더는 뒷순위로 빚이 이어지지 않고 상속이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어머니가 한정승인해도 손자에게 빚 상속

주의할 부분이 있다. 만약 이씨의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한 뒤 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다. 이 때도 빚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어온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전 하나은행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1순위와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씨의 경우처럼 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는 손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받더라도 손자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 pixabay]

상속포기 각서 써도 법원 신청해야 효력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많다. 우선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곽 변호사는 “간혹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뒤 공증만 받아두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서만으로는 상속포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상속인 차량 처분하면 한정승인 취소

한정승인은 절차가 까다롭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공고를 내야 한다. 이후 채권자에게 채권액(빚) 비율에 맞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누락하면 한정승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방 변호사는 “흔히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이미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도 (채권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접수번호는 신청서 받은 접수증 및 접수통보 S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분실 시 '접수번호 찾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찾기](#)

접수하신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름	<input type="text"/>
신청 접수번호	<input type="text"/>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

[조회하기](#)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 후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포함),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신용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회사 중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는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시어 조회하셔야 합니다. (합후 다른 협회의 조회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통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드리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안내문 다운로드](#)

자료: 금융감독원

또 상당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을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럴 때 일일이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금융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금융권의 예금은 기본이고 대출,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사용 내용, 연금가입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조상 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고인 명의의 전국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금융SOS]

'돈'에 얽힌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풀어줍니다. 한 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 채권 추심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 문제까지 '금융SOS'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
-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